

대외 경제 관계: 최근 북일 경제 관계의 현황과 특성

조은호 / KOTRA 북한실 과장, 前 나고야무역관 근무

머리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관계 정상화 시도

“5월 11일” 본 반동이 계속하여 분별없이 행동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자민당의 우익 보수 세력이 특히 광분하고 있다. 그들은 최근 일본인 행방불명자에 대한 우리측의 최종적인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하여 ‘국제화’를 운운하고 있다.” 6월 30일자 「로동신문」,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논평의 주요 내용이다.

1997년 11월 조선로동당과 일본연립 3당 대표회담에서 “불행한 과거를 금세기 중에 해결하자”는 양국 관계 정상화 의지를 표현한 이후, 일본인 처 고향 방문으로 돌파구를 찾는 듯하던 양국 관계 정상화 시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이다. 이와 함께 3차 일본인 처 고향 방문도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¹⁾

일본인 처 고향 방문으로 어렵게 돌파구

를 찾는 듯하던 양국 관계가 다시 표류하게 되자 수교 후에 이루어질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도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그렇다면 수교 전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경제 협력이 없는 상태인 현재 상업적 베이스에서는 양측은 서로 어떠한 경제적 매력에 있는 것일까? 어떻게 경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특징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향후 북일 경제 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고에서는 첫째, 미수교 하에서 양국 경제 관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무역 부문을 중심으로 무역 동향, 미해결 채권, 朝朝 무역의 실상 등을 다루려 한다. 둘째, 자본과 기술 이전 부문에서 대북 송금 문제·기술 이전·합영 투자 진행 사항을 알아본 후 양국 경제 관계의 특성을 정리해본다. 마지막으로 경제 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북일간의 관계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1) 금년 6월, 북한측은 일본적십자사간에 요구한 7 건 10 인의 ‘납치 의혹’ 조사에 대해 “1 인도 찾을 수 없었다”고 ‘제로 회답’을 전했고, 이어 제3차 일본인 처 고향 방문에 대해서도,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일방적인 거부 방침을 전했다 (sapid(1998. 8.5), p. 105).

를 통해 중단기적인 양국 관계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무역 부문의 관계

발전 과정

1956년 9월부터 중국의 대련, 홍콩 등을 통하여 마치 중국과 무역하는 형식으로 시작되어 이미 40년을 경과한 북일간의 무역은 크게 몇단계로 나누어 발전을 해오면서 최근에는 연간 500억 엔대의 나뉠대로 안정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여 1996년에는 247억 엔, 1997년에는 216억 엔까지 축소되었다. 한편, 일본의 수입은 1990년까지는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구소련·동구의 붕괴를 기화로 감소하다가 199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1994년 327억 엔, 1997년 365억 엔으로 1991년 수준 회복).

품목별로는 한때 수입 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던 아연을 중심으로 하는 비철금속과 압연 강판은 지금은 수입 총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의류 가공 중심의 교역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1997년의 실적

최근 10년간의 추이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일본의 수출은 1986년의 310억 엔으로부터 계속 감소하

여 1997년 실적을 보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출 216억 엔, 북한으로부터 수입 365억 엔으로 함께 581억 엔을 기록하였는데, 수출은

〈표 1〉 시대별 북일 무역의 특징

단계	시기	주요 특징
1단계	50년대 중반~60년대말	· 북일 무역의 어명기 · 중국의 대련·홍콩 경유로 거래 전개
2단계	70년대 전반	· 국제 무역의 요건 정비 및 일조 관계 진전에 따른 大小 플랜트 수출의 급증
3단계	70년대 후반	· 미결제 문제 발생, 무역 보험 및 공적 자금 융자의 적용 정지 · 수출은 일시적으로 급감 · 일본 기업이 후퇴하여 북한·조총련 기업간의 '朝朝貿易化'
4단계	80년대 전반	· 현금 결제, 스팟성 거래 중심의 연간 1,000억 엔 규모의 거래로 회복
5단계	80년대 후반	· 수출의 반감에 따라 연간 600억 엔 규모의 거래로 균형 축소
6단계	90년대 이후~현재	· 의류를 축으로 하는 합영 사업, 위탁 가공 거래 중심의 연간 500억 엔 규모의 거래로 정착

자료: 田中喜彦(1997), "日朝經濟關係の現状と展望, 北朝鮮の現状を讀む", JETRO.

〈표 2〉 북일 무역의 추이

	일본의 수출		일본의 수입		수출입 합계	
	(100만 엔)	(1,000 달러)	(100만 엔)	(1,000 달러)	(100만 엔)	(1,000 달러)
1986	31,039	183,971	29,273	173,229	60,312	357,220
87	30,842	213,739	34,886	241,744	65,728	455,483
88	30,592	238,883	41,589	324,649	72,182	563,532
89	27,205	197,001	41,115	298,678	68,320	495,679
1990	25,382	175,900	43,296	300,282	68,678	476,182
91	30,246	223,993	38,284	283,574	68,530	507,567
92	28,283	223,025	32,676	258,560	60,958	481,585
93	24,224	219,654	27,943	252,351	52,167	472,005
94	17,400	170,780	32,729	322,684	50,129	493,464
95	23,732	254,957	32,108	339,680	55,839	594,637
96	24,695	226,994	31,703	291,412	56,397	518,406
97	21,630	178,804	36,535	310,484	58,166	489,288

자료: 대장성통관통계.

전년 대비 12% 감소, 수입은 전년보다 15% 증가하여 엔 기준으로는 최근 6년간 최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무역 총액 92조 엔(수출 51조 엔, 수입 41조 엔)과 비교하면 북일 무역 비율은 0.06%에 불과하며, 섬유류를 중심으로 한 합영·합작 사업 또는 임가공에 의한 거래가 중심이 되고 있고 일반 거래는 축소되고 있는 등 거래 내용도 큰 변화가 없다.

수출 품목별로는 섬유 제품이 75억 엔으로 수출 총액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품목이다. 이 가운데 모직물이 증가하고 인조 섬유 직물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0% 정도 감소되었다. 임가공 관련 공업용 미싱(1.1억 엔), 단

추·지퍼 등(4억 엔)도 수출되고 있다. 이어 수송 기계가 40억 엔으로 수출 총액의 18%를 차지하는데 전년보다 40%가 증가한 실적이다. 승용차(6,854 대, 25억 엔)가 70% 증가하였고 금액은 작지만 자전거(2만 1,305 대, 7,600만 엔)도 대폭 증가하였다.

수입 품목별로는 섬유품이 115억 엔으로 수입 총액의 32%를 차지하는 최대 품목이다. 수출에서 직물 감소가 반영되어 코트, 양복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5%가 감소되었다. 이어 식물성 생산품이 25%를 차지하는 90억 엔으로 전년보다 100% 증가하였다. 버 짚(24만 톤, 57억 엔)도 배증하였고 남자용 양복은 전년 수준이나 단품으로 최고 금

액을 보였다. 기타 송이버섯(615 톤, 28억 엔) 등이 주요 수입품이다. 수입은 섬유가 감소한 이외 수산물은 전년 수준, 기타 품목은 현저히 증가하였다.

1991년 이후 미회수채권 금액 확인도 불가능

일본의 북한에 대한 채권은 1990년말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 합계 약 900억 엔에 이른다. 현재의 북한 경제력으로는 이러한 채

〈표 3〉 품목별 수출입 구성

(수출)

품목	1996		1997		
	(100만 엔)	구성비(%)	(100만 엔)	구성비(%)	전년비(%)
섬유 제품	8,196	33.2	7,501	34.7	(▲8.5)
기계류	1,785	7.2	1,172	5.4	(▲34.3)
전기 기기	1,889	7.6	2,834	13.1	(50.5)
수송 기기	2,845	11.5	3,932	18.2	(38.2)
플라스틱·고무	1,067	4.3	855	4.0	(▲19.9)
비금속·제품	1,003	4.1	671	3.1	(▲33.1)
화학 제품	567	2.3	398	1.8	(▲29.8)
광물 제품	2,908	11.8	1,596	7.4	(▲45.1)
재수출	2,209	8.9	812	3.8	(▲63.2)
기타	2,226	9.1	1,860	8.5	(▲16.4)
수출 총액	24,695	100.0	21,630	100.0	(▲12.4)

(수입)

품목	1996		1997		
	(100만 엔)	구성비(%)	(100만 엔)	구성비(%)	전년비(%)
섬유·제품	13,498	42.6	11,535	31.6	(▲14.5)
식물성 생산품	4,427	14.0	8,937	24.5	(101.9)
동물성 생산품	6,118	19.3	6,185	16.9	(1.1)
비금속·제품	2,569	8.1	3,716	10.2	(44.6)
광물성 생산품	3,354	10.6	3,213	8.8	(▲4.2)
전기 기기	940	3.0	1,772	4.9	(88.5)
조제 식품류	261	0.8	336	0.9*	(28.7)
목재·제품	72	0.2	229	0.6	(218.1)
화학 제품	55	0.2	164	0.4	(198.2)
기타	410	1.2	449	1.2	(1.8)
수입 총액	31,703	100.0	36,535	100.0	(15.2)

자료: 대장성통관통계.

권을 변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본측의 채권 금액에 관해서는 원금과 1990년 말까지의 이자를 북일 양국이 확인했으나, 북한측이 1991년 이후 “이자율에 대해서는 채권 문제 전체의 틀 안에서 협의하고 싶다”는 자세로 금액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²⁾

이때문에 1996년 11월 일본측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고 싶다”고 서신을 보냈으나 북한측은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앞으로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 타결되어 일본으로부터 전후 배상금이 지불되지 않는 한 변제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朝朝 무역이 양국 경제 관계의 근간

일본의 경우 현재 북한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일본·북한이라는 국가간 무역은 사실상 극히 소규모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무역이 ‘조총련 기업·북한’이라는 일명 ‘朝朝貿易’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본 기업 등은 대금 회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조총련계 상사들을 통해 북한과 간접 교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조총련계 사업체인 조선산업(주), 조선특산물판매, 동해상사 3개사만의 매출만도 200억 엔대로 북일 교역액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동해상사는 1961년에 설립되어 주로 산업 기계, 광산 기계 등을 북한에

〈표 4〉 조총련계 상사의 거래 내역

기업명	자본금	매출액	취급 품목	북한 거래 기업	일본 거래 기업
朝鮮産業(株)	1억 2,500만 엔	40억 엔	광물, 곡물, 수산물, 목재, 비료 등	조선은덕총무역회사	닛쇼이와이, 마루하, 우치하라수산, 산코
朝鮮特産物販賣(株)	4,800만 엔	62억 엔	버섯, 식품류 전반	조선대성무역, 조선비단무역, 조선매봉무역 등	산코, 東京청과, 오사카청과, 오카다식품
東海商事(株)	N/A	99억 엔	산업 기계, 차량, 광산물, 농수산물	조선석탄공사, 조선기계무역총회사, 조선크리카수출입회사	이토츄, 니치멘,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

자료: KOTRA 내부 자료.

2) 拙譯(1998. 6), “일본종합상사만의 평양 방문기”, 「KOTRA뉴스레터」, p. 22.

수출하고 광산물·농수산물을 일본에 수입하는 총련의 사업체로 이토추, 니치멘, 미쓰바시, 미쓰이 등 일본의 대형 종합상사들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조선특산물판매(주)는 1969년에 설립되어 주로 북한의 각종 특산물과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일본 기업 거래처는 산코, 오카다식품, 東京청과, 오사카청과 등이다.

조선산업(주)은 1974년에 설립 북한의 수산물을 취급, 제3국과의 무역 거래를 주로 하며 닛쇼이와이 등의 종합상사와 마루하, 우치하라수산 등과 거래하고 있다.

그외에도 조총련은 치요다국제무역(1987년 설립), 해양약업(주)(1976년 설립, 개성고려인삼 등 북한의 건강 식품을 수입·판매), 강흥무역(주)(1973년 설립, 북한 광물을 수입 판매) 등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 거래에 관한 일반협정 체결

양국간의 수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에 있어서 양국간의 기본 틀은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의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간의 일반협정이 기준이 되고 있다. 同협정은 1963년 2월 27일에 처음 체결된

이래 1965년 8월 1차 개정, 1980년 9월 2차 개정에 올 1월 26일에는 세번째로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북일 양국간의 상품 거래에 관한 일반협정」의 특징은³⁾ ① 전문에 '일반 조건의 목적과 그 적용 범위'를 새롭게 언급한 것, ② 무역 거래에 관한 기본 조건을 '1953년 INCOTERMS'에서 '1990년 INCOTERMS'로 변경한 것, ③ 상품 검사와 이에 수반된 상품의 계산 근거를 보다 유연하게 한 것, ④ 포장 조건을 무역의 다양화·다각화 방향으로 개정한 것 등이다.

자본·기술 부문의 관계

기술 협력

기업 차원에서 상품 제조와 기계 설비 가동을 위한 기술 협조는 일본이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총련계 산하의 과학 기술자 단체의 조직적인 기술 공급이 있는지 여부가 큰 관심거리이다.

가장 대표적인 일본 기술의 북한 유출 사례로는 비날론 기술을 들 수 있다. 주체 섬유로 알려진 비날론은 이승기 박사가 개발한

3) "朝日兩國商事間の 商品取引に關する 合意書", 月刊「朝鮮資料」, 1998년 7월호, pp. 47~56.

독자 기술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東京대학 출신의 화학자 염성근 박사가 1년간 조선대학에서 비닐론 합성 기초 실험을 한 후 연구 실적을 갖고 실험 기재와 서적을 구입, 북한으로 귀국하여 연구 실적을 '과협'에 전달한 것에 공헌한 바 크다. 조총련계 과학 기술자 모임인 '과협'은 1986년부터 10년간 서적 30만 권, 각종 기자재 전본 10만 점을 북한에 제공하는 등 과학 기술의 대북 협력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⁴⁾

이와 관련하여 1995년 12월 25일 「산케이신문」은 1면 톱으로 “일본에 산업 스파이 활동”, “북조선 하이테크 기술 입수, 군사 전용 가능 물질도”, 3면 해설 기사에 “북조선 스파이 조직군 근대화에 일익: 정보 관리의 허술함 뚫어” 등 북한이 산업 스파이 조직을 일본에 만들어 과학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어 한때 소동이 난 적이 있다.

산케이가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신문이어서 그 보도 내용을 100% 믿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일본은 전세계 공개 정보의 90% 이상을 수집할 수 있다는 '정보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도 이러한 일본의 이점을 활

용, 그들의 해외 공민 단체인 조총련 산하의 과학자 단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필자가 일본 근무중 접촉한 조총련계 기업들도 광 화이버, 전자 계측, 철강 첨가제 등의 기술 분야에서 북한과 거래하고 있으며, 물론 기술적인 지원도 하고 있는 것을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바 있다.

대북 송금 금감

빠친코 자금으로 대표되는 재일 조총련계에 의한 북한 송금은 북한의 경제를 지지하는 큰 축이 되어왔다. 북한이 '소규모 폐쇄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어도 외국으로부터의 일시적인 지원으로 경제를 연장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북 송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블랙머니의 실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버블 경기시에는 5억 달러 이상에서 최근에는 1억 달러선까지로 추정되고 있다.⁵⁾

자금의 루트는 총련계 일본으로부터의 직접 송금, 중국의 은행 구좌를 경유한 송금,

4) 安部 桂司(1997), “工業技術水準, 北朝鮮の現状を讀む”, JETRO.

직접 북한 방문시 지참금 등이다.

고향 방문시의 현금 지참이 일반적으로 한때 1만 명이 1인당 100만 엔을 휴대 귀국 하였다고 하는데, 금액으로는 100억 엔에 달한다. 북한의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평양에서 100만 엔은 4인 가족이 10년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거금이였다.

북한과 거래 관계에 있는 은행인 아시카와(足利)를 통한 정식 송금은 1996년도에 약 4,000 건, 5억 6,000만 엔에 그쳤다. 그러나 중국·홍콩의 은행 구좌를 통한 송금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필자도 일본 근무중 한국의 본가에 적게는 50만 엔에서 많게는 100만 엔까지 수차례 송금을 한 적이 있지만, 송금 목적을 '가족 송금'이라고만 기재하면 은행에서는 더 이상 그 용도를 묻지 않는다. 일본외환관리법상 500만 엔 이하의 송금은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금 모금 방법은 순수 현금도 있겠지만 이는 한계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포들이 낮은 신용도와 담보 부족으로 일본계

은행 이용보다는 '朝銀'을 이용하는 점에서, 대부금의 일정액을 현금 명목으로 먼저 띠고 대부해주는 방법으로 모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으로부터 대북 송금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 조은신용조합 가운데 조은 오사카가 1997년 5월 3,000억 엔의 불량 채권을 안고 파산한 배경은 계속되는 일본의 금융 불황과 불량 채권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총련의 교육 시설·부동산을 시가보다 두 배 이상의 융자를 해준 것이 문제로 드러났는데 이 자금의 일부인 약 300억 엔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소문도 있다.

뼈아픈 실패를 겪고 있는 합영 사업

북한은 70년대초 외자 도입을 통한 경제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1979년 막대한 외채만 남긴 채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더 이상 외자를 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록 일부 서방의 개방 물결이 들어오더라도 철저히 이를 차단하면서 경제 회생을 도모하는 취지에서였다.

5) Nicholas Eberstadt, "Financial Transfers from Japan to North Korea: Estimating the unreported Flows," *Asian Survey*.

그는 일반적인 주장처럼 연간 5억 달러의 송금이 될 경우 북한은 연간 200만 톤의 원유와 200만 톤의 옥수수를 구입하여 에너지난과 식량난에 대한 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추정은 북한 경제가 민수 경제(제1경제)뿐만 아니라, 군수 경제(제2경제), 당 경제(제3경제) 등으로 구성되며 민수 경제보다 군수 경제나 당 경제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일본 기업의 투자 또한 부진하다.⁶⁾ 일본의 대형 종합상사 및 대기업들은 미수교국인 북한과의 직접 거래가 기업 이미지 실추, 자국 및 미국과의 거래 관계 악화 및 대미·대한 비즈니스 수행의 불이익 발생 우려때문에, 직접 교류보다는 대북 전문 교역 상사를 중계 창구로 활용, 간접적으로 대북한 투자를 추진하는 등 투자 접근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대북한 관계 개선 이후 북한 내에서 벌어질 각종 대형 프로젝트 수주 등 대북한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은 착실하게 준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하여 1996년 초에 미쓰이,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제철, 도요타 등 일본의 재벌 기업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투자 타당성 조사를 했고, 1996년 9월에 개최된 '나진·선봉 투자포럼'에는 140 명의 대규모 방문단이 방문했으나, 이는 투자 타당성 조사 차원의 방

문으로 단기간 내에 투자로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나진·선봉투자포럼에서 미쓰이그룹 계열의 신와물산과 동양엔지니어링이 1000평 지대가 중화학공업단지로 개발이 유망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 타당성 조사서를 발표한 것은, 일본 정부의 대북 경험 지원사업 연계 프로젝트로서 기안된 것으로 자체 투자를 모색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간 이루어져왔던 투자는 대부분이 조총련계 기업인들에 의한 투자인 것이다. 일본 대장성 「국제금융국연보」에는 1992년말 현재 32 건 3,560만 달러로 되어 있으나, 조총련합영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31 건 1억 달러로 실제 조업은 60 개사에 불과하다.⁷⁾ 또 1996년 기준으로 조총련 소속 북한 투자 기업의 합영 공장 폐업률은 40%에 달하며, 실질적으로 조업 중단이나 폐업 직전의 합영 회사를 포함하면 50%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있다.⁸⁾

이러한 투자 실패율은 매우 심각한 것이며 우리에게도 좋은 시사점이 되고 있는 것

6)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를 가장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대장성국제금융국연보」가 발표하는 신고 기준 통계이다. 또 일본은행 「국제수지 통계」의 장기 자본수지 자산 항목의 「직접 투자」 통계가 있다. 대장성에서 작성되는 허가·신고에 바탕을 둔 통계는 사실상 실행된 통계와 일치할 수 없다. 이 통계에는 1,000만 엔 이하는 포함되지 않고 1990년 이후에는 300만 달러 이하의 투자, 부동산 취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동양경제신문, 경제조사협회, 통산산업성 산업정책국의 설문 조사를 통한 통계가 있다.

7) KOTRA(1995), 「북한 투자 실무」, p. 201.

8) 신지호(1996. 9), 「朝朝 합영 사업의 교훈」, 「통일경제」.

이다. 왜 이처럼 투자가 빈약하고 운영 상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좋은 사례로 국제화학합영회사의 여영백 사장의 합영 사업 8년의 경험을 들 수 있다. 그는 도로·철도 수송의 강화, 통신 수단의 정리(IDD회선 사용에 의한 전화, 팩시밀리 도입), 시설의 안정 강화(정전·수관 사고의 방지), 주·부원료를 포함한 원자재의 안정 공급 등 네 가지를 긴급 과제로 들었다.⁹⁾ 거기에다가 실제 제조업 비즈니스 경험이 적은 교포들의 경험 부족, 사회주의체제의 경직성, 구소련·동구 시장의 붕괴로 인한 수출 전략의 차질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한때 북한내 합영 투자의 성공 사례로 자주 거론되었던 '사쿠라그룹'의 모란봉합영회사도 합영에서 철수하였고, 故 전인식氏의 아들인 전수일氏 등 젊은 실업가들이 중심이 되었던 '평양피아노합영회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사쿠라그룹은 북한 일변도의 경영을 시정하고 1997년 5월에는 전수일氏 등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경제 교류 상의 특징

이상 무역 부문과 자본·기술 부문에서의 양국간의 경제 관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의류 입가공품, 동·식물성 식료품, 원재료 등을 수출하고 기계류 등 공업 제품을 수입하는 전형적인 수직 분업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대금 회수 문제때문에 수출을 자제하고 있지만 수입 탄력성이 매우 높은 제품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북한의 일본 시장에서의 수입 탄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 기업들은 북한과의 거래에 수지 균형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북한이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이는 북한의 약 900억 엔에 이르는 채무 미해결로 대북한 수출 보험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북한과의 거래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단순한 상품 거래에서 투자형 무역 거래로의 발전적인 변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총련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9) 安部 桂司, *ibid.*, pp. 153~154.

섬유 부문의 합병·합작 및 위탁 가공에 따른 무역에 의해 북한에 섬유 직물, 봉제 기계, 섬유 기계 등이 수출되고, 가공된 섬유 제품이 일본에 수입되는 교역 패턴이 정착화되어 있다. 이때문에 단순 교역은 줄어들면서도 투자형 무역 거래는 꾸준히 증가를 보여 전체 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넷째,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던 대북 송금이 일본의 경제난으로 최근 크게 줄어들고 있어 북한 경제 운영에도 타격이 되고 있다.

다섯째, 직접 투자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투자 타당성 조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동해와 연한 일본 지방정부들이 '환동해경제권'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형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관심을 가지며 수교 이후 경협 프로젝트 수주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전망

왜 북일 관계 개선이 늦어지고 있는가?

독자적인 주체 외교를 주장하는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 협상에서 양국간의 관계로 좁

혀 협상을 진행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이다. 북한이 이처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본이 북한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이며, 수교 후의 총련계 자금의 활용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과 같은 국제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大國은 북한과의 수교 협상에서도 기본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만한 여론이 조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과의 관계도 염두에 두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 있다. 일본의 북한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들 수 있다.¹⁰⁾

첫째, 한국과의 관계를 기초로 한다. 즉, 한국과 약속하고 실행한 이상의 정책 기준으로 북한에 대한 청구권, 지원, 법적 지위 등의 문제에 관하여 해결하지 않는다. 둘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일본의 전후 외교 총결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외교적 과제이다. 셋째, 북한에 대한 정책이 일본과 미국의 협력 관계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것

10) 武貞秀士, 「防衛廳教官の北朝鮮 深層分析」, pp. 282~286.

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돌이켜보면 일본의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문제는 일본의 외교 과제의 하나이지만, 일본으로서는 미국과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대처해나가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것이 일본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는데 미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는 안보적인 중요성, 한국도 일본의 2위의 시장이라는 경제적인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내년 초까지 가시적 진전 없으면 장기 미해결 과제로

1997년 8월 4일 김정일의 대일 관계 개선 의사 표명 논문, 1997년 12월 15 명의 1998년 1월초 김정일 당총서기의 모리 자민당 총무회장과 도이 사회민주당 당수에 대한 연하장 전달 등 북한측의 전향적인 자세가 있었다. 이처럼 북한이 대일 접근을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위협 수준에 이르는 식량 부족 등 경제난 해결에 일본의 협력이 더욱 중요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지원은 결코 쉽고 금융·외환 위기로 대규모 지원과 투자의 어려움이 있는 것

이 현실이고, 지난 수년간 미국과의 협상 결과 대규모 지원의 한계 노정 등이 일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보여진다.

한편, 현 상태가 지속되는 한 일본 기업 가운데 북한에 투자나 경제 협력을 서두를 이유는 없을 것이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일본 기업은 서두르지 않아도(한국 기업이 진출한 후에 진출하더라도) 자본·기술·마케팅 능력에서 최고 위치를 차지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북일간에 더욱 큰 문제는 전후 처리 문제가 2년 후면 세기를 넘어서 과거의 역사로 묻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과거 한국·동남아·중국을 비롯한 식민지 피해 국가들과의 수교 협상에서 한반도 '전쟁 배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도 현실적인 장애 요인이다. 북일간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900억 엔대의 채무 불이행 문제, 상업적인 매력 결여 등 현 상황 변화없이 양국간 경제 발전의 기반은 미약하다. 결국, 북일간의 정치·경제 관계의 확대와 발전은 수교와 경제 협력 자금 자원과는 별도로 생각할 수 없는 사안어 되고 있다.¹¹⁾

따라서 양국간의 경제 발전 전망도 결국은 수교 협상과 연계하여 살펴볼 수밖에

(표 5) 북일 수교 진행 세 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수교 협상 진전 정도	예상 관련 후속 조치	예상 파급 효과
제1시나리오	타결	· 국교 수립 이후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후속 조치 실시 · 경제 협력 자금 지원(유무상 100억 달러 수준 예상) · 무역 보험의 이용, 공적 자금 융자 연불 수출 가능	· 교역·투자·인적 교류의 확대로 북한 경제 재건 가속화 · 인적 교류 확대로 일정 수준의 개방·개혁 조치 불가피 · 일본 기업들의 경제 재건 프로젝트 진출로 일본 의존형 경제 구조 고착 · 남북 경험 필요성 대폭 경감 · 한국의 KEDO 분담 부담 경감
제2시나리오	진행	· 일본인처방문단 연내 100여 명 수준으로 확대 · 제2차 대규모 식량 지원 · 비료·농약·농자재 지원	· 식량 위기 극복 · 식량 자생적 확보 능력 강화 · 농업 관련 인사 교류 활발 · 남북 경험 필요성 감소
제3시나리오	중단	· 추가 식량 지원 중단 · 일본인 처방문 사업 중단	· 동아시아 정세 변화 · 북일 관계 정상화 지연

없다. 현재 북일 수교 협상은 타결·계속 진행·중단의 3 개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지난 기간 회담에서 북일간에 대립집인 '과거 청산'과 '일본측의 자세' 역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다. 과거 청산의 범위와 방법이 서로 상이하며 결국은 수교 자금과 연계되어 있는데, 일본 자체가 금융 불안 속에서 대규모 자금 지원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일본의 독자 외교를 요구하고 있으나 전통적 우방인 미국·한국과의 정책 공조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대 외교

이다. 경제난 속에 국민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새로운 우방을 얻기 위해 오랜 우방과의 우애를 저버리기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북일간에는 수교 협상은 계속 진행되겠지만 향후 1~2 년 내에 극적인 타결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국제 기구의 요청을 받아 식량 지원 등을 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된다. **9**

1) 수교 자금 공여와 북한 경제 파급 효과에 관해서는 임윤철, "북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수교 자금 공여와 북한 경제 파급 효과 연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참조 바람.

옥고를 기다립니다

1. 본지는 북한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기고를 환영합니다. 보내신 글은 학술 논문이나 시사성있는 글로서 다른 곳에 게재되지 않았거나 게재될 예정이 아닌 것이어야 합니다.
2. 보내신 글은 본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본 연구원의 동의없이 전재할 수 없습니다.
4.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독자 의견도 심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 「통일경제」에 실린 글들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관해 제언하고 싶은 독자께서는 원고지 양식으로 저희 「통일경제」 편집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에 한해서 소정의 고료와 월간 「통일경제」 1부를 증정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 110-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78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TEL : 724~4114

FAX : 730~1770

원고 집필 기준

-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논단 : 70매 내외
 - 특집 : 40매 내외
 - 독자의견 : 10매 이하
- 원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 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724~4124

FAX : 733~6389

- ▶ 연간 회비는 60,000원입니다

외환은행 061-13-40879-9

예금주 : 現代經濟研究院